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성찰적 종교교육 체계의 구현 가능성

－ 대중문화 담론과 기독교 담론 간 관계의 탐색적 고찰을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of Reflective Religious Education to Korea's Popular Culture in Post-modern Era

: An Explo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 Discourses on
Popular Culture and Christianity

민용기(목원대학교 조교수)

차례

- | | |
|-------------------------------------|--|
| 1. 서론 | 3) 지속가능한 호혜적 관계의 정향성: 대중문
화 및 기독교 담론의 교육체계로의 적용 |
| 2. 본론 | 4) 메타(meta)지식으로서의 상용화를 위한
문화 및 종교지식체계의 정체성 구현 |
| 1)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중문화 특징과 종교
담론과의 관계 | 3. 결론 및 제언 |
| 2) 대중문화의 특징에 대한 기독교 담론의
가치 | |

1. 서론

현대 사회의 특징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은 ‘문화의 시대’라는 개념적 정의일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모두 이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culture)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들어서는 이 문화에 내재된 긍정적, 부정적인 특징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들이 미디어(media)에 의해 구현되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대중문화의 근저(根底)에 놓인 문화의 본원적 의미에 대한 고찰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그 영향력이 실제 대중문화의 특성 때문인지, 미디어의 특성에 의해서 발현되는 외재적 특성인지

에 대한 분석 역시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논의되는 대중문화의 본원적 속성과 이를 매개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한 구분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¹⁾

더욱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것은 대중문화가 실제 사회구성원들이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원초적 의식 세계라 할 수 있는 종교적 삶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특히 미디어에 의해서 대중화되어 있는 산업적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향유자원에 대한 수용층이 넓어짐으로써 마침내 상징적 사유의 위계 모형에서 상위에 위치한 성스러운 삶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종교체계에도 대중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종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 문화적 매개물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의 영향력 역시 강화되고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종교적 삶의 원리가 대중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사람들의 향유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과 독립된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적 삶이 시장 내 소비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이 사회구성원들 앞에 놓여있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한다면 지금은 대중문화 담론의 영역과 종교담론의 영역 간 관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때임에 틀림없다.

오랜 기간 인문사회과학 연구분야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교와 사회문화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²⁾ 대중문화와 종교 간의 의사소통 체계에 대한 연구 부문 중 주목받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와의 소통 체계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유일신에 의한 세상의 창조와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기독교적 신앙관은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해체적 상황과 일상생활 내

1) 민용기·김남조, 『관광자의 소비문화와 관광목적지 이미지의 담론 연구: 관광지의 장소 마케팅을 위한 탐색적 논의』, 『관광연구논총』 21(2),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09, 61-82쪽.

2)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사회학의 지평』,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339-369쪽.

세속적 문명화의 과정을 지지하는 포스트모던적 특징이 내재된 대중문화와는 구별되는 삶의 가치관을 띠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최근 이 두 영역 간 민감한 충돌과 지속적인 관계의 검증을 위한 성찰적 역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내재적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술한 사실이 전적으로 대중문화와 종교적 담론의 대립적인 이분법적 위치를 상정한다고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영역의 대립적 관계 상정은 빠르게 움직이는 대중문화의 질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교화 주체로서 종교의 제 역할을 한정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대중문화의 상업화에 대한 금지성 규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담론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대중문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사회구성원들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종교교육체계를 구현해야 하며 이들 간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종교담론 중 특히 기독교적 담론과 대중문화 간 관계 간 논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통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삶의 영역 간 관계를 대치적 영역으로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근원적 속성의 상징체계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통해 이 두 영역 간 의사소통 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 과정은 단순한 문화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공시적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통시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둘러싼 변화의 질서와 인식의 재구성 과정의 원천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대중문화 영역은 그 실체와 이에 응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적, 동적 역량에 대한 복합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중요 콘텐츠인 만큼 지적 영역의 역동성이 갖추어진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최근의 대중문화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 아젠다(agenda)가 추구하는 해체의 원리 뿐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모더니즘적 사상의 지속성도 함께 포함하여 고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대중문화 관련 연구의 중심 주제와 논의에 대한 체계적, 비판적 고찰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더불어 변화하는 대중문화 담론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종교교육체계의 성찰과 지향성 변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 그 시스템이 과거부터 최근 포스트모던 사회 내 어떤 교호작용 과정 속에서 분화되어 왔고, 어떻게 체제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문화사회학적 입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대중문화의 현재적 특성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론적으로 함께 살펴봄으로써 융합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토대 구축을 위한 성찰적 자아상의 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2. 본론

1)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중문화 특징과 종교 담론과의 관계

지금까지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의 개념적 논의는 서구 문명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역사적 순환을 나타내기 위해 연구가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그 논의의 거시적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외현시키는 문화적 하위범주로 예술, 건축, 음악, 문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그 연구영역이 확장되어 복잡다단한 응용학문분야 체계로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새로운 문화적 현상에 대한 개념은 ‘효율성, 표준화, 산업화’ 등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모더니티(modernity)의 사회 질서를 ‘해체,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개념, 담론으로 해석했다. 또한 합리성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 문화적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메타이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전환적 문화변혁 과정의 시대 도래를 설명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이 포스트모던적 삶의 특징은

대중문화에 내재된 ‘융합(convergence)’의 가치로 그 의미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연구되고 있다.³⁾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규정은 다양한 문화적 변화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논의 범위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문화 연구에 있어서 단순한 미학적 모델로서의 텍스트(text) 해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활세계 영역의 연구 모델을 창출하기에 이른다.

이 시대적 변화는 결국 한 시대의 주류 문화의 개념 변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를 정의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나 이를 범주화하면 크게 계급적 의미로서의 문화, 생활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많은 학자들은 문화가 고급스럽고, 교양 있는 지배계급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⁴⁾ 하나의 지식체계로서 인간적 완벽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⁵⁾ 이 같은 주장은 문화가 사람들 수준의 고저(高低)를 결정하는 주요한 개념으로 논의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를 인간 삶의 총체적 방식이라는 개념으로 확대하여 논의되기도 했다. 사회에서 기존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선이라는 문화의 개념이 인간 삶의 총체적 방식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석되어 오기도 했다.⁶⁾ 이 같은 거시적인 사회 흐름은 인간의 주체성과 피지배계층의 역동성을 강조하여 문화가 가진 의식과 경험의 영역을 확산시키게 된다.⁷⁾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의 개념 규정은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구속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행위 유형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⁸⁾⁹⁾ 마지막

3) 김문조, 『융합문명론』, 나남 출판, 2013.

4) Williams, R., 『Keywords』, Fontana, 1993.

5) Arnold, M., 『Culture and Anarc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6)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7.

7) 민웅기·김남조, 앞의 글, 61-82쪽.

8) Chaney, D., 『Authenticity and Suburbia』, Hastings House, 1997.

9) Tylor, E.,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Murray, 1871.

으로 문화는 상징적 소통의 도구로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문화의 개념은 의미의 망이 어떻게 공유성을 지니고 해석되는지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른 방식으로 규정된다.¹⁰⁾ 사람들은 문화라는 소통구조와 체계를 통해 정체성(identity)을 구현하고, 자신의 스타일과 이미지 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낸다. 이 소통의 문화는 최근의 포스트모던사회에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근원적 수단이자 목적으로서 기능하며, 사회 구성원과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문화는 빠른 속도로 영역 간 개념이 연계되기도 하고, 한 영역 내 개념이 세분화되기도 하면서 활발한 영역 간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¹¹⁾ 따라서 포스트모던 사회가 추동하는 이 문화적 실존의 변용과정에 대한 성향과 서사구조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계 내에서의 영역 간 개념 구분을 떠나 삶의 가치가 내재된 상징적 시·공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활정치의 실천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역동적인 문화 현상과 연계되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종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종교의 개념적 정의 역시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실행체계, 믿음 등을 종교로 간주하는 포괄적 정의가 있으며, 둘째, 신념의 본질을 근거로 경험적인 현실 세계와 초경험적인 실재 사이를 구분하는 존재로 여기는 배타적 정의가 있다. 마지막 셋째, 어떤 특정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거부하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종교의 사용정의를 그대로 따름을 원칙으로 하는 실제 사용되는 정의관(definitions in use)에 의한 관점 등으로 논의가능하다.¹²⁾

이처럼 종교에 대한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10) Turner, V., 『The Forest of Symbols』,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11) 민웅기·김남조, 앞의 글, 61-82쪽.

12) 엔터니 기든스·필립 서튼, 『현대사회학』,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광영·유홍준·정성호 역, 을유문화사, 2014.

더욱이 종교의 실체와 관련하여 이를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더 큰 기능적 복잡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종교사회학적 연구 과정에서는 단순히 ‘어떤 종교를 믿는가’의 문제를 넘어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신념 체계를 두고 많은 학문적 갈등이 빚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¹³⁾ 최근 들어 종교 연구는 포스트모던 문화가 지니는 다양성에 근간을 둔 사회의 거시적 흐름과 연계되어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종교적 믿음은 단일가치, 신념을 통해 특정 의례적 행위로서 구현되기 때문에 문화와 종교 간 의사소통 중에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 더 나아가 일부 논의들은 종교 자체의 확정적 개념 정의를 위해 문화 개념 논의와 함께 이를 고찰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와 종교 간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학자들과의 갈등 진폭이 커지기도 한다.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한 해석차이, 대중매체의 영향력, 종교 공동체 간 학문적, 사회적 갈등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⁴⁾

이 같이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가능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다양한 삶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그들의 생활세계의 지속가능한 문화적 향유를 위해 종교가 여러 가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구조에 기능하기 위한 성찰적 종교교육체계의 올바른 정립 역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성찰성(reflexivity)은 사회적 규칙과 자원 등의 조건에 대한 인식과 함께 행위자 스스로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의식이 사고하게 되는 사회심리적 성향을 일컫는데,¹⁵⁾ 따라서 성찰적 종교교육체제란 종교 교리에 근거한 심리적, 행위적 질서 교육에 더하여 사회

13) 전명수, 『영성과 힐링의 사회적 의미: 종교사회학적 접근』,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6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1-34쪽.

14)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근본주의』, 『종교연구』 28, 한국종교학회, 2002, 29-67쪽.

15) 민웅기, 『성찰적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관광의 의미: 육구의 개인화와 생활문화적 시민권 개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4(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2, 123-143쪽.

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사회, 신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체성 정립을 위한 복합적인 지속가능한 종교교육체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성찰적 종교교육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 구현된다면 사람들이 종교와 대중문화 담론과의 교호작용과 관련한 해당 종교에 대한 올바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앙생활과 세속적 사회질서의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적 삶을 영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윤리적, 쾌락적 상품화 과정 등의 사회문제가 외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결국 사회적으로 정화되어야 할 사회질서의 안정화 구현 가능성을 올바른 종교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대중문화 담론과 종교 담론 간 선순환 구조 구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현상은 세속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담론의 경우에도 유일신에 대한 믿음, 구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종교 신념의 일치성 외에 종교적 계율의 사회적 적용, 종교 조직 및 단체의 영향력, 경제체계와의 관계 등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함께 연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일부 사회구성원들은 문화와 종교 간 서로 영향력을 주는 관계 형성이 종교적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므로,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종교적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는 최근의 포스트모던적 대중문화 담론 영역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연구 분야임에 틀림없다.

2) 대중문화의 특징에 대한 기독교 담론의 가치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적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회하위 부문은 대중문화 영역일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대중문화는 매스미디어(mass media)의 등장에 따른 자본주의의 문화적 산물로서 그 영향력

을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 영역을 위한 콘텐츠로서 외현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생산, 소비과정이 반복되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라 할 수 있다.¹⁶⁾ 대중문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중문화가 단순히 하나의 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 매개, 공급하는 구성원의 욕구와 맞물려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하는 사회시스템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나타난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력은 문화적 확산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세계화를 촉진시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지구적 시공간의 압착(time-space compression)을 진행시켰으며, 이를 통해 등장한 초국적 기업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를 넘어 문화적 세계화 현상을 가져왔다.¹⁷⁾¹⁸⁾¹⁹⁾ 이처럼 다양하게 확장, 변형된 활동의 장(field)을 중심으로 세계 공간에서는 탈중심화된 문화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의 일상을 가로지르는 노동·여가 생활문화의 유연화(flexibility)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²⁰⁾

상술한 과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중문화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더욱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생산과 소비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대중문화의 특징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 가능하다. 첫째, 텍스트의 생산과정의 범주이다. 이 범주는 자본과 권력의 영향력, 대중의 취향과 선택, 유통과정, 시장성, 검열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지닌 텍스트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특징을 논의한다. 둘째, 생산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범주이다. 이

16)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2010.

17) Giddens, A., 'Living in a post-traditional society', In U Beck, S Lash, and A Gidden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pp. 56-109, Polity Press, 1994.

18) Ritzer, G., 『The McDonalidization of Society』, SAGE, 1996.

19) Tomlinson, J., 『Globalization and Cul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0) Urry, J., 『Consuming Places』, Routledge, 1995.

는 상징적인 소비의 대상으로서 대중문화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는 텍스트 수용과정의 측면에서 대중문화를 통한 표현행위가 어떤 정체성과 욕망을 나타내는지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다.²¹⁾

하지만, 이 같은 대중문화의 특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도 현대 사회의 대중문화는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짓기 어렵다. 물론 이는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영향으로 여러 형태와 내용으로 분기(分岐)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동안 전통사회와 근대사회에서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함께 합쳐질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동시대, 동일 공간에서 하나의 ‘융합’된 형태로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²²⁾ 대중문화의 융합적 혼재 현상을 정리하면, ‘개인화 - 집단화’ 간의 융합, ‘이미지 · 스타일 기반 콘텐츠 - 실용주의 콘텐츠’ 간의 융합, ‘규모의 경제 - 문화적 할인’ 개념 간 융합, ‘진정성 - 의사이벤트’의 융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대중문화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groupism)’ 문화가 혼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미디어 및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사회구성원들은 개인이 혼자 보낼 수 있는 삶의 기회(life chance)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²³⁾ 한편 개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문화적 성향과 유사한 사람들과 함께 집합을 이루어 그들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²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online community)의 확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관계는 현대사회에서의 대중문화의 발전을 이끄는 주된 추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21) 김창남, 앞의 책, 2010.

22) Featherstone, M., 『Consumer Culture & Postmodernism』, SAGE, 1991.

23) 율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2014.

24) 미셸 마페줄리, 박재환 역, 『현대를 생각한다』, 문예출판사, 1993.

둘째, ‘이미지(image)’와 ‘스타일(style)’이 중요해주는 대중문화의 특성과 함께 가상의 문화콘텐츠를 넘어서 실제 체험 가능한 실용주의(pragmatism)적 문화콘텐츠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함께 융합되고 있다. 대중문화를 둘러싼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문화콘텐츠의 사용가치 외에 기호 가치가 반영된 정체성 구현의 도구로서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미지와 스타일이 대중문화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는 핵심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 디자인, 브랜드 가치 창출 등이 소비생활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²⁵⁾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노출된 대중문화 콘텐츠보다 실용적으로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소비를 지향하기도 한다. 최근 가성비(가격대비성능비)라는 새로운 용어가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화자(膾炙)되는 것도 이 같은 대중문화 특징의 흐름에 편승해서이다.

셋째, 최근 대중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와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 현상이 충돌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제품의 평균 생산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이득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²⁶⁾ 최근 다양한 문화산업에 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대기업의 자본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 예로 세계 문화시장의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로 대표되는 문화·자본 세계화가 활성화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동형화시키고 있다.²⁷⁾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적 할인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보호하고 있다. 문화적 할인이란 특정 국가에서 제작된 문화상품이 외국에서 수용될 때 국가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쉽게 동일시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생기는 수용 장벽을 의미한다. 문화상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생산력이 약한 국가

25) 민용기·김남조, 앞의 책, 61-82쪽.

26) 김창남, 앞의 책.

27) Ritzer, G., 『The McDonaldization of Society』, SAGE, 1996.

라도 초국적 문화산업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침투를 막게 되는 것은 이 문화적 할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²⁸⁾ 최근 동일 문화권으로 인식되어 온 아시아 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소통 과정에서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동안 바로 이 문화적 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생산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보편성과 이질성에 대한 동시적 고려가 요구된다.²⁹⁾³⁰⁾ 이는 대중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가치가 사회에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¹⁾ 그 추구 가치의 중요성을 어디에 더 할애하는가에 따라 문화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산업화하여 관리, 유통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참여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³²⁾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진정성(Authenticity) 추구하고 의사이벤트(Pseudo-event) 사이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일찍이 맥켄넬(MacCannell)은 다양한 문화 활동 중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정성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진정성과 시연된(staged) 진정성 간의 모순을 발견했다.³³⁾ 그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이 특정 대중문화의 산물 속에 있는 이념적, 사상적 속성을 그대로 느끼기를 원한다고 보았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부어스틴(Boorstin)의 의사이벤트와 관련한 논의 역시 주목해야 한다. 부어스틴은 콘텐츠의 내용 깊이가 없는 대중 문화산업을 의사이벤트라고 명하고, 그 문화적 산물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낮은 문화의 진정한 산물들에 오히려 더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

28) 김창남, 앞의 책, 2010.

29) 김영재, 『아시안(Asian)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모색』, 『한국문화기술』 9,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0, 89-109쪽.

30) 전영선,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문화콘텐츠』, 『한국문화기술』 9,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0, 41-63쪽.

31) 강민정, 『OSMU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창작방법연구: 〈논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4,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7, 251-270쪽.

32) 김경훈·박영우,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을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문화기술』 20,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6, 45-72쪽.

33) MacCannell, D.,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Schocken Books, 1976.

문에 익숙한 의사이벤트를 통한 상업화의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⁴⁾ 결국 전술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은 현대사회의 대중문화가 향유 주체들의 이성적, 감성적 사고가 혼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5) 36)}

앞서 논의한 바처럼 이처럼 활발한 융합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종교 담론은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다양한 삶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 중 기독교 담론은 문화와 연계하여 고민해야 할 여러 가지 삶의 원리를 우리 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기독교 담론과 학문에서 이 대중문화를 어떻게 비판하거나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는 오랜 기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융합적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사회화 체계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복잡한 문화변용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사회에서 포스트모던 사회의 대중문화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기독교 담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치의 지향점을 어디에 맞추어야 할 것인지, 어떤 균형 있는 시각과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는 기독교 문화가 상당부분 정립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근원적인 기독교 교리와 실천에 대한 성찰과 함께 대중문화와의 연계적 사고를 통한 비판적 현실 적용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특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관인 절대신의 존재론적 담론은 현재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 복수(複數)성과 대등성의 원리와는 상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통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의 해결책 제시 과정은 더욱 복잡하게 논의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담론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왔던 것도 종교적 교리와 사회적 적용 과정에서의 실용적 내용을 둘러싼 체계적인 학문적 고찰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³⁷⁾ 복잡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문화 현상과 이와 연계된 기독교

34) Boorstin, D.,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Harper & Row, 1964.

35) 이철,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문화담론: 감정의 문화사회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0, 269-296쪽.

36) Featherstone, M., 『Consumer Culture & Postmodernism』, Sage, 1991.

교 담론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집단 내 구성원들 간 이해와 갈등 관계는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원초적인 감정적 위치에서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며,³⁸⁾ 이 감정의 갈등은 결국 공동체적 삶과 관계의 삶을 중시한다는 점과 개인의 의지와 정서를 존중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포함하여 나타나기 마련이다.³⁹⁾

고도성장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중문화와 기독교의 종교적 담론 간 건전한 상호작용의 지속 가능성 발전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왔다.⁴⁰⁾ 최근까지도 다변화되고 있는 대중문화의 특성에 따라 기독교 담론의 종교적 가치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교회의 역사와 전통, 신앙, 신과 개인 간의 관계, 종교적 경험 및 신앙공동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그 사례들이다.⁴¹⁾ 이처럼 최근 들어 기독교 담론 내 각기 다르게 존재하는 지향점이 대중문화와 만나 더 세밀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간 생산적 의사소통을 위해서 대중문화 담론과 기독교의 종교적 담론 간 학문적 논의의 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탐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지속가능한 호혜적 관계의 정향성: 대중문화 및 기독교 담론의 교육체계로의 적용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

37)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근본주의」, 『종교연구』 28, 한국종교학회, 2002, 29-67쪽.

38) 이철,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문화담론: 감정의 문화사회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0, 269-296쪽.

39) 전명수, 「영성과 힐링의 사회적 의미: 종교사회학적 접근」,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6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1-34쪽.

40) 김성진,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5-45쪽.

41) 이원규, 「부흥의 추억: 한국교회, 미래는 있는가?: 한국교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성찰」, 『신학과세계』 70, 감리교신학대학, 2011, 154-187쪽.

신이 추구하는 종교적 원칙과 대중문화의 담론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질서에 근거한 종교적 삶은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대중문화 담론과 여러 부문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 내 개념적 고찰을 시도하는 연계적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담론은 대중문화의 담론과 그 추구 가치와 성격상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이 두 담론의 내재적인 공통 접점을 찾아보면 상당부분 연계되는 점들도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의 실존에 대한 논의를 통한 사회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정치의 정립을 위해서는 그 관계의 융합적 지식의 학습을 위한 교육체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 담론과 대중문화 담론의 관계에 따른 대중교육체계의 범주화를 시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중문화 담론 및 기독교 담론 간 관계에 기반을 둔 교육 체계의 범주화

대중문화 담론 기독교 담론	사회 순기능적 성격	사회 역기능적 성격
연계적 타당성	① 확장된 관계교육	② 유연화된 교화교육
분리적 정당성	③ 구별된 개체교육	④ 규제된 금지교육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대중문화 담론과 기독교 담론이 그 대치적 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계의 정립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담론 범주의 개념적 논의를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범주화 및 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 각각의 개념들은 삶의 독립된 영역에서의 성찰적 결합에 의해서 실천 가능해진다. 전술한 점을 고려한 바람직한 교육체계의 범주화를 위한 교육체계 영역의 구분은 크게 네 가지 개념으로 실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순기능적 성격을 지닌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다양한 담론 중 연계적 정당성의 확보 가능한 논의와 결합된 ‘확장된 관계교육’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기독교 담론과 대중문화 담론이 수렴 가능한 특정한 사고, 행위에 의해서 연계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이를 연계하여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선(善), 공익, 정의 등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실제 현재 대중문화산업에서 횡행(橫行)하고 있는 무차별적 해체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다. 부모, 이웃, 기타 윤리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기독교 담론은 건전하게 확장된 관계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켜준다.

둘째, 대중문화는 그 내재적 속성 상 자본축적의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사회윤리적인 측면의 역기능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 담론에서 살펴보면 대중문화 자체가 지닌 사회 역기능적 성격이 있는데, 이를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수렴할 수 있는 ‘유연화된 교화교육’개념이 교육체계에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넷 문화의 확산을 통한 다양한 세속화된 문화원리가 사회에 확산되어 있다. 지속적인 기독교 담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인터넷 기술과 문화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를 통해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절대적 진리를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에게 전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올바른 교리의 해석과 적용에 근거한 유연화된 교화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담론이 올바르게 대중문화 교육에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대중문화의 사회순기능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종교적 교리 등의 이유로 분리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종교와 대중문화와의 갈등구조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갈등구조의 확대 이전에 기독교 담론의 종교로서의 ‘구별된 개체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중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와는 상반되는 개념일 경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삶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구별을 위해 종교교육체계의 구성 및 운영이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존중하고, 사회적 선을 이루는 행위가 대중문화의 사회기능

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으나, 기독교 교리에서는 유일신을 믿지 않는 한 어떠한 사회적 선행을 통해서도 신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 이 경우, 대중들이 인식하고 교육받은 일반화된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대중문화의 특징과 기독교 담론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각 신앙인들과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구별된 개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독교 담론과 대중문화 담론이 서로 간 긍정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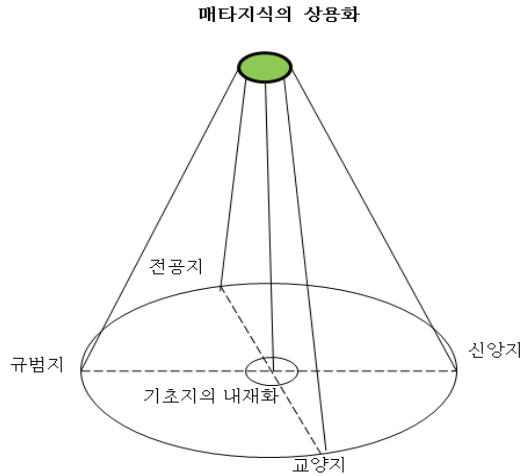
넷째, 기독교 담론의 분리적 정당성은 부정적 측면의 대중문화와 만나 ‘규제된 금지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준다. 종교의 한 범주로서 기독교 담론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들과 분리된 삶과 문화를 강조한다. 또한 그 분리적 삶은 일반 대중문화의 역기능을 막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 역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규제된 금지 교육은 더 강화되어 사람들에게 올바른 문화를 체화시키기 위해서 구조화된다. 예를 들어 기독교 담론 중 성경에 기술된 사회와 연계된 많은 금지성 계시와 규약이 이에 속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종교와 대중문화 담론 간 관계에 따른 교육체계의 성찰적 범주는 각 영역의 특징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호혜적인 소통관계에 기반한 사회질서를 담보한 가치관의 합의를 의미한다.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기독교 담론과의 대치적 상황을 인위적으로 상정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시대적 흐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으로 대중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기독교의 종교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심리적 협상을 하거나 교리를 훼손해서도 안 된다. 각각의 원칙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 실천 행위는 결국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 담론의 원칙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에 따라 지속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상술한 탐색적 범주화를 통한 관계적 교육시스템 구축 및 실현은 대중문화담론과 기독교 담론 간 지속가능한 건전한 의사소통체계의 정립을 위한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다.

4) 메타(meta)지식으로서의 상용화를 위한 문화 및 종교지식체계의 정체성 구현

최근 포스트모던 사회의 복잡다단한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질서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된 공동체 책임의 중요성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들 간 공동의 책임 영역에 대한 각자의 과업과 규칙의 질서는 의사소통 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체계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이 문화 콘텐츠를 통한 삶으로의 적용 결과로 작용해야 하는데, 그 교육적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지의 내재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교육 등의 고등교육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전공지(專攻知)와 교양지(敎養知), 그리고 일반적인 대 교육체계에서 구현되는 규범지(規範知)와 신앙지(信仰知)의 기초지식체계의 성찰적 결합이 내재화 될 때, 이들 각 메타 지식이 현실 사회에서 상용화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지식 체계가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될 때 사회구성원들의 학습효과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전술한 메타 지식체계의 융합모형은 곧 지식 구조의 하위범주가 각각의 개별적 정체성 추구 모델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 간 연계되어 지식범주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 구조의 하위 범주와 메타지식으로서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융합 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지식 구조의 하위 범주와 메타지식으로서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융합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문화의 현재적 특징이 지닌 사회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메타지식으로서의 성찰적 종교교육 콘텐츠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종교체계가 강조하는 윤리적 규범지식에 대한 교육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성과 관련한 교양지식 교육은 물론, 종교적 교리와 관련한 올바른 신앙지식,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전공지식 교육이 함께 기초지를 구성하여 사람들의 올바른 신념과 행위의 실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그 성찰적 교육체계는 관계성, 개체성, 교화성, 금지성의 성격을 띠고 사람들에게 구체화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사회에서 외현되고 있는 다양한 대중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숙지(熟知)해야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규범지에 근거한 지식체계의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와 관련한 탈일상적 영역의 지식 체계의 생성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신앙지에 근거한 구성원들의 신념의 실천에서 비롯되는 지속적인 내재적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점차 사회구성원들에게 누구나 부여되는 대중교육체계의 실천적 교육과정 외에 대학 교육 등의 고등 교육기관에서도 상술한 기초지의 내재화를 위한 학습체계는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전공지식과 교양지식의 내재화를 위해서 다양한 통합적 분석 및 주체적 추론 능력을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 각 영역에서의 교육 콘텐츠들은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대중문화담론에 대한 교육과 인간 실존과 관련한 종교담론 교육을 중심으로 피교육자들에게 체화되고 있다.

이처럼 각 메타(meta)지식 영역이 추상화된 지식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에게 체계적으로 내재화되어 올바른 행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문화담론과 종교담론의 지식 체계가 융합적, 생산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융합지식 체계의 구현과 의식적 사고에서 파생되는 실천지식의 내재화는 대중문화담론과 기독교 담론의 성찰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중문화 담론과 기독교 담론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대중문화가 가진 부정적인 사회영향력에 대한 종교적 담론의 대치적 대응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서는 성찰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성찰성을 담보로 구성된 이 융합사회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을 고민해야 한다.⁴²⁾ 각 사회 하위문화영역 간 성찰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화는 결국 정교한 교

육체계를 통해 실현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독교 및 대중문화 담론의 각 범주가 지닌 성격에 따라 실현 가능한 각각의 교육시스템 유형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그 관계성과 분리성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연계되기도 하고, 동시에 서로 구별되어 구성되어야 할 교육체계의 구축 모델을 살펴보았다.

결국 이 같은 성찰적 교육체계에 대한 논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종교 담론은 각 개인 스스로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고민 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까지 고려한 복잡한 부문에 대한 공감 및 배려의 능력과 연계하여 논의 가능하다. 현대 대중문화 소비과정에서는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대중문화상품의 내용 선택에 있어 사람들 각자에게 부여된 자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 콘텐츠 향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³⁾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거시적 사회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교담론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근대를 지배한 이성적 판단과 해체 및 파편화 과정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사고에 대해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기독교 담론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념적 소통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종교적 소통의 상징체계는 새로운 대중문화에 대한 대처, 금지, 변환, 재구성, 수용 등 다양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종교 담론은 최근의 급변하는 대중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성찰적 논의를 시도해야 한다. 그 재귀적 소통 과정에서 세분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비판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 질서의 사회화 과정에서 종교 담론은 문화가 지닌 상징의 포화 시대를

42) Lash, S., 『Reflexivity and its doubles: structure, aesthetics, community. Reflexive Modernization』, In U Beck, S Lash, and A Gidden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pp. 110-173, Polity Press, 1994.

43) Featherstone, M., 『Consumer Culture & Postmodernism』, Sage, 1991.

설명해주기도 한다. 이제는 대중문화의 점진적 유입과 함께 찾아온 삶의 다양성과 혼란의 경계를 구분하고, 바른 종교관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새롭게 구현해야 할 생활 가치를 받아들이는 성찰적 종교교육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의 자기구성적 의사소통 과정이 종교 담론에서 어떻게 외현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역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상술한 새로운 문화적 가치의 범주들은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윤리적 지향점에 대한 지속가능한 종교 담론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문조, 『융합문명론』, 나남 출판, 2013.
- 김창남,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2010.
- 미셸 마페줄리, 『현대를 생각한다』, 박재환 역, 문예출판사, 1993.
- 엔터니 기든스·필립 서튼, 『현대사회학』,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광영·유홍준·정성호 역, 을유문화사, 2014.
-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14.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7.
- Arnold, M., 『Culture and Anarc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Boorstin, D.,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Harper & Row, 1964.
- Chaney, D., 『Authenticity and Suburbia』, Hastings House, 1997.
- Featherstone, M., 『Consumer Culture & Postmodernism』, SAGE, 1991.
- Giddens, A., 『Living in a post-traditional society』, In U Beck, S Lash, and A Gidden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Polity Press, 1994.
- Lash, S., 『Reflexivity and its doubles: structure, aesthetics, community. Reflexive Modernization』, In U Beck, S Lash, and A Giddens: <Reflexive Modernization: Politics, Tradition and Aesthetics in the Modern Social Order>, Polity Press, 1994.
- MacCannell, D.,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Schocken Books, 1976.
- Ritzer, G., 『The McDonalidization of Society』, SAGE, 1996.
- Tomlinson, J., 『Globalization and Cul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Turner, V., 『The Forest of Symbols』,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Tylor, E.,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Murray, 1871.
- Urry, J., 『Consuming Places』, Routledge, 1995.
- Williams, R., 『Keywords』, Fontana, 1993.

2. 학술논문

- 강민정, 「OSMU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창작방법연구: <논개>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4,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7.
- 김경훈·박영우, 「스토리텔링 소재 개발을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문화기술』 20,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6.

- 김성건, 「고도성장 이후의 한국교회: 종교사회학적 고찰」, 『한국기독교와 역사』 3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3.
- 김영재, 「아시안(Asian) 문화콘텐츠 개발방안 모색」, 『한국문화기술』 9,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0.
- 민웅기, 「성찰적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관광의 의미: 욕구의 개인화와 생활문화적 시민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4(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2.
- 민웅기·김남조, 「관광자의 소비문화와 관광목적지 이미지의 담론 연구: 관광지의 장소 마케팅을 위한 탐색적 논의」, 『관광연구논총』 21(2),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09.
- 이원규, 「부흥의 추억: 한국교회, 미래는 있는가?: 한국교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성찰」, 『신학과세계』 70, 감리교신학대학, 2011.
- 이원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근본주의」, 『종교연구』 28, 한국종교학회, 2002.
- 이철,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새로운 문화담론: 감정의 문화사회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0.
- 전명수,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사회학의 지평」, 『한국학연구』 3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전명수, 「영성과 힐링의 사회적 의미: 종교사회학적 접근」,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6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5.
- 전영선,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문화콘텐츠」, 『한국문화기술』 9,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0.

Abstract

The Application of Reflective Religious Education to Korea's Popular Culture in Post-modern Era

: An Explor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n Discourses on
Popular Culture and Christianity

Min, Woong Ki

As popular culture is rapidly changing in the postmodern era,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right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popular culture and religion. Christian discourse is a religious conviction and a system of thought that deserves attention during deep discussions on the relation between popular culture and religion. Although popular culture in the postmodern era respects diversity, the cultural relativism makes people agonize over the ethical validity. Moreover the good and adverse effects of discourse on popular culture lead to the discussion that each function of Christian discourse should be connected or separated. The study is expected to organize a sustainable relationship between discourses on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주제어: 대중문화(popular culture), 기독교(christianity), 종교(relig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담론(discourses)

논문 접수일 2016. 07. 10. | 논문 심사일 2016. 07.18 | 게재 확정일 2016. 08. 10.